

1장 책이 집을 파괴한다

분명 어딘가 있는 책을 사는 처지에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나,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면서도.”
요시다 다쿠로 吉田拓郎의 노래 한 소절이 지금 내 마음에 절절히
와 닿는다. 마음이 아픈 것은 나의 장서 상태 때문이다. 책이 늘
어도 너무 늘었다. 책장에 꽂아둔 책과 거의 같은 양의 책이 계
단에서 복도, 책장 앞, 책상 주변까지 쏟아져 쌓일 대로 쌓였다.
덕분에 몸을 슬쩍 움직이는 일조차 여간 고역이 아니다. 바닥에
흐트러진 책과 책 사이 좁다란 공간에 한쪽 발을 비집고 들어

일러두기

- * 외래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따르되, 이미 널리 통용되는 경우나 출판사 문고명 또는 집집명은 한자음으로 표기했다.
- * 본문에 소개되는 저서와 영화 제목은 원서 또는 한글판 제목에 준해 바꾸었다.
- * 원어 병기는 가독성을 위해 인명, 저서(영화)명, 옮긴이 주에 한했다. 단, 국내 정식 소개된 작가나 저서의 경우에는 가급적 제외했다.
- * 옮긴이 주는 각주로, 원서명과 출판사명과 출간년도는 윗첨자로 처리했다.

서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겨우 앞으로 나간다 해도 쌓아올린 책의 탑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

발 디딜 공간을 찾을 수 있다면 그나마 낫다. 못 찾으면 책을 밟고 넘어 다녀야 한다. 신성한 책을 밟다니, 서평 쓰기를 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막돼먹은 행동이리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무렇지 않게 책을 밟고 다닌다. 벌을 받는 건지 발이 미끄러지면서 밟은 책 표지가 찢어져서 “으!” 본체를 빼낸 책갑이 뒹굴며 뒹굴며 “으악!” 펼쳐진 책장이 휙 접히고 구겨져서 “어이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요사이 찾는 책을 발견할 확률이 점점 낮아져서 분명 집에 있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오거나 서점에서 다시 사오는 일이 심심찮게 있다. 위험한 것은 다시 사오거나 빌려온 책이 장서의 파도에 떠밀려 ‘해저 깊은 곳’에 잠겨 버리는 일이다. 언제 도서관에서 독촉장이 날아올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완벽한 장서 공간이 되리라 믿었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교토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내 방은 다다미 너 장 반 크기였다. 그러다 여덟 장이 됐고, 열 장짜리 오피스텔이 됐다. 독서 환경이 차츰 넓어지면서 책의 양도 늘어났다. 도중에 독채에서 혼자 산 적도 있지만 그건 예외로 하자. 사십 대 중반(장기대출금 반환 시기가 아슬아슬하게 다가오는 나이)

에 나는 어엿한 집 한 채의 주인이 되었다. 십수 년 전에 다다미 스물한 장 넓이 지하실이 달린 주택을 장만하면서 한동안은 ‘장서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독서 환경을 손에 넣었으니 앞으로는 책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엄청난 빚을 떠안긴 했지만). 그랬는데 결말은 이런 고약한 형국이다.

책이 아무리 많더라도 책장에 꽂아두는 한은 언제든 검색할 수 있는 든직한 ‘지적 조력자’다. 하지만 책장에서 비어져 나와 바닥이며 계단에 쌓이는 순간, 융통성 없는 ‘방해꾼’이 된다. 그러다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범람은 결국 ‘재해’로 치닫는다. 아직은 책의 범람이 지하에 머물러 다행이지만, 이윽고 1층을 잠식하고도 성이 차지 않아 계단을 따라 2층까지 밀고 올라오면 정말이지 ‘대참사’가 따로 없다.

‘바닥을 뚫은 남자’ 사건

10년 전쯤 어떤 ‘사건’이 있었다. 도쿄 내 목조건물 2층에 살던 남자가 방에 잡지를 대량으로 쌓아 놓다가 바닥에 구멍을 내 버렸다. 뉴스에도 나왔으니 기억하는 분도 있겠다. 자유자재로 벽을 오가는 남자를 그린 마르셀 에메의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바닥을 뚫은 남자’인 셈이다. 당시 남자는 쉰여섯 살로 지금 내 나이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그는 잡지

더미와 함께 바닥을 뚫고 1층으로 낙하했다. 하지만 크게 다친 데 없이 두 시간 만에 무사히 구출됐다. 재난을 당한 이는 1층에 살던 노인이다. 설마하니 천장에서 책과 사람이 떨어져 내리리라고는……. 마침 노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천장, 그러니까 2층 바닥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상담하러 가 있었기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아마 천장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당장에라도 떨어져 내릴 듯했으리라. 무서운 일이다. 사건을 보도한 주간지에 2층에서 떨어진 수많은 잡지가 어지러이 널브러진 노인의 방 안 사진이 실렸다. ‘바닥을 뚫은 남자’도 어지간히 모았구나 싶었다. 다만 이 남자는, 장서가나 수집가라기보다 그저 게으름뱅이였던 것 같다.

보통 사람에게 이 사건은 술안주 삼아 떠들기 좋은 화제거리였겠지만, 나는 그냥 웃어넘길 수가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나와 비슷하게 장서의 괴로움을 안고 사는 친구와 대화하는 와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뉴스에서 보고 처음에는 자네가 아닌가 싶었어”, “그건 내가 할 소린데” 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후 ‘바닥을 뚫은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가옥에 손실을 입히고 심지어 사람 목숨까지 위협할 뻔했으니 죄를 물어 처벌당했을 터다. 그쯤에서 정신을 차렸다면 다행이지만 게으름뱅이라 또 어딘가에서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을 성싶다. 하긴 바닥이 뚫릴 정도로 책을 쌓아두는 남자의 마음은, 실제로 바닥을 뚫고 나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어디 비슷한 사건이 또 없는지 날마다 사회면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는다.

장서로 바닥을 뚫은 저명인사

나의 아버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다. 책장에서 흘러넘친 책들이 책상 위나 바닥에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바닥이 뚫리고 방이 기울었다. 현관도 책들로 넘쳐났다.

이 ‘아버지’는 누구일까, 또 ‘나’는 누구일까. ‘아버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굳이 밝힌 점으로 보아 아들인 나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듯하다. 다만 잡지에 글을 실을 정도로 어떤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리라. 답을 공개하면 ‘아버지’는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구시다 마고이치¹¹⁾, ‘나’는 구시다 가즈요시^{串田和美}다. 가즈요시는 마고이치의 장남이자 유명한 배우 겸 연출가다. 그가 잡지 《요무요무》^{2010.7}에 쓴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여ものすごく気になる〉에 따르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서재에 발

[1] 구시다 마고이치^{串田孫一}(1915~2005) 문필가이자 전 도쿄외국어대학 교수. 주로 산, 자연, 삶에 대한 사색적인 글을 썼기에 ‘사색 수필가’로 불린다. 주요 저작으로 시집 《목동의 시계^{羊飼の時計}》, 《산의 광세^{山のパンセ}》 등이 있다.

을 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드는 게 아이인지라 부모 말을 어기고 이따금 몰래 서재에 숨어들었다. 서재에는 책뿐만 아니라 천체망원경이나 곤충표본, 기압계 같은 물건, 얼굴이 그려진 야자열매 등 신기한 것이 가득했다. 가즈요시는 “마치 마법사의 작업실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법사의 작업실’ 바닥은 뚫리고 말았다.

나는 바닥이 뚫리기 전 서재 모습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다. 가즈요시의 말마따나 책 외에도 온갖 물건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에 둘러싸인 멋진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훌륭한 책이 아무리 많이 꽂혀 있어도 책밖에 없는 서재는 지루하다. 그림 한 장 없이 그저 책등 글자로만 꽂 들어찬 서재는 멋이 없다. 소설가 마루야 사이이치^[2]가 서재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다. 책장 앞에 선 사이이치 옆에 마릴린 먼로가 수영복 차림으로 제임스 조이스의 책을 읽는 사진이 걸려 있다. 썩 괜찮았다. 마루야는 조이스 학파다. 아일랜드가 낳은 전위 문학과와 섹스 심벌이라는 조합이 뜻밖에 그럴싸했다. 어찌 됐든 구시다 가즈요시는 바닥이 뚫릴 정도로 책을 쌓아두고 사는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책이 좋아지긴 싫어지긴 분명 상당히 영향을 받았

[2] 마루야 사이이치丸谷才一(1925-2012) 일본 근대의 어두운 사소설계 문학 풍토를 비판하며 영국풍의 지성과 유머가 담긴 소설을 썼으며,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 등을 번역했다. 2010년에 《젊은 예술가의 초상》(개정판)으로 요미우리 문학상(연구·번역 부문)을 수상했다.

을 것이다. 참고로 구시다 마고이치는 고가네이 시의 주민이었다. 예전에 옆 도시인 고다이라 시에 살 때 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오센 무사시고가네이 역을 자주 이용했다. 덕분에 마고이치의 집이 어딘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토록 존경하는 작가가 내가 서성거리던 마을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어깨에 으쓱 힘이 들어간다.

종이봉투의 무게를 못 견디고, 뿡!

일본 문학사에서 압도적 장서량을 자랑하는 작가는 2011년에 작고한 이노우에 히사시^[3]이다. 생전에 그는 고향 야마가타 현 가와니시에 장서를 기증했고, 그의 호를 딴 도서관 ‘지필당문고’가 지어졌다. 기증할 때 이노우에가 집에서 책을 꺼내 보니 무려 ‘13만 권’이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책과의 만남과 격투를 다룬 《책의 운명本の運命》^[4]분순 문고, 2000은 달리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재미있다. 장서에 대한 부분도 있다.

“모두 해서 몇 권이나 있을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3만 권쯤 있

[3]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1934-2010) 유명 극작가이자 소설가. 1969년 등단한 이래 〈아버지와 살면〉, 〈무사시〉 등을 무대에 올려 마이니치 예술상, 요미우리 연극대상을 수상했다. 그의 호 지필당 遊筆堂에는 글쓰기 속도가 느리더라도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면 그의 바람이 담겨 있다.

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13만 권이나 있다는 게 분명이 났어요. 비극입니다. (웃음)”

그 ‘계기’란 전 부인과의 이혼을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넘 어가도록 하자. 이노우에는 나쓰메 소세키⁴나 이노 다다카⁵伊能忠敬, 다자이 오사무⁶나 히구치 이치요⁷樋口一葉 같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과 희곡을 많이 썼다. 그때마다 해당 인물에 관한 각종 자료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책이 늘어났다. 각종 문학상 선정위원이나 신문 서평위원을 역임한 덕에 폭력적이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배달됐다. “서고나 작업실에서 책이 넘쳐흘러 복도로 밀려들고, 가족의 머리맡까지 노리며 침략자처럼 집안을 점령했다. 서고를 따로 한 채 지어 공간을 늘렸음에도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결국 사건이 터졌다. 책장에 미처 꽂지 못한 책들이 바닥에 쌓였다. 다다미 여섯 장 크기의 집 작업실은 머지않아 발 디딜 틈조차 없어졌다. 방에 있으면 ‘끼익끼익, 끼이익, 끼익끼익, 끼이익’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별레가 있나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봉투 한가득 책을 사 와서 작업실에 ‘쿵’ 하고 내려놓는 순간 바닥이 스프링 기울면서 ‘쿵’ 하고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노우에도 대단한 것이, 그때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동시에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수많은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철문이 손가락 하나의 힘이 더해져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 ‘감동’이었다니 역시 작가를 ‘업’으로 삼는 사람답다. 실은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도쿄 고엔지에 있는 목조건물 2층에 살던 때다. 이사 가기 전날 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책을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 한쪽에 쌓아두는 빈 방에 이불도 깔지 않고 누웠다. 어렴풋이 ‘끼익끼익, 끼이익’ 별레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다. 책이 한 보따리만 더 있으면 바닥이 뚫린다는 경고였으니 말이다.

일주일 만에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2006년에 세상을 뜬 만화평론가 요네자와 요시히로⁴도 알아주는 장서가였다. 사람들에게는 코믹마켓⁵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요네자와가 애써 모은 만화나 대중문화 관련 책과 자료는 현재 메이지대학 ‘요네자와 요시히로 기념도서관’에 보

[4] 요네자와 요시히로⁴米澤嘉博(1953-2006) 메이지대학 재학 중에 만화 비평 모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1975년 코믹마켓을 기획하는 한편 일본 전후 만화사를 정리하는 등 ‘만화비평’을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5] 코믹마켓 매년 8월과 12월 도쿄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만화축제.

존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요네자와 집에서 도서관으로 반입된 책과 자료는 사과 상자도 대략 4천5백 개였다. 앞서 말한 고엔지 집에서 내가 옮겨온 상자는 책만 50~60개 정도였다. 이사할 때 전문업자 두 명과 친구 두 명이 도와줬는데, 책으로 꽉 찬 상자를 옮긴 후에 담벼락 앞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전문업자가 기억난다. 가벼운 상자, 조금 무거운 상자, 아주 무거운 상자를 교대로 옮기면 그나마 괜찮다. 하지만 무거운 상자를 50~60개나 잇달아 옮기면 전문가도 두 손 든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일반 이사에 비해 다소 이상하고 힘든 이사였다. 그런데 그게 4천5백 개나 된다면 어떨까. 요네자와 요시히로 기념도서관 홈페이지에 관장 마미야 이사무^{間宮勇}와 부인 요네자와 에이코^{米澤英子}의 대답이 있다.

옛날에는 한계를 넘어서면 이사해야 했어요. (웃음) 그야말로 셋방살이를 전전했죠. 제가 아는 첫 번째 집은 이노카시라센 이케노우에 역 근처 하루미장인데, 그게 대학교 때고요. 그 후에는 같은 동네 아베장으로 이사했죠. 아베장은 비교적 넓었어요. 마침 본격적으로 코믹마켓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던 무렵이라 당일 쓸 자료나 접촉테이프 같은 자잘한 비품들을 집에 놔뒀는데, 책들이 점점 방을 잠식해서……. 아베장이 비좁아져서 이사하려고 역 근처에 다른 집을 빌렸어요. 목조건물 2층에 책을 3분의 1 정도 옮겼더니 돌연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이 나타

나서는 “문이 안 닫혀요!”라며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 철근 콘크리트 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거기서 일주일도 못 살고, 이사 비용은 부동산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다시 이사했죠. (웃음)

이 사건은 요네자와가 생전에 쓴 글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소년 매거진》이나 《소년 점프》 같은 주간만화지도 결코 버리는 법이 없이 모조리 모아두었고, 책들을 책장 없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을 따라 그대로 쌓아올렸다. 천장 가까이 쌓이면 책 무게 때문에 바닥이 약간 패이면서 천장과 책 사이에 틈이 생긴다. 그러면 그 틈에 또 잡지를 채워 넣는 식으로 자꾸 자꾸 쌓았더니 이사하던 날 바로 집주인이 올라와 불평을 했다는 얘기였다. 책의 무게로 틈이 생기다니 대단하다. 그 상태로 쪽 그 집에 살았더라면 조만간에 바닥이 뚫렸으리라. 어쩌면 일주일도 안 돼 쫓기듯 이사한 게 다행인지도 모른다.

첫 번째 교훈
책은 생각보다 무겁다. 2층에 너무 많이 쌓아두면 바닥을 뚫고 나가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